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2. 25.(수) 11:00, 배포 2024. 12. 24.(화) 오후
(지면) 2024. 12. 26.(목) 조간

인천항·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일부, 공공과 민간 분야로 개발방식 구분·시행

- 인천신항 2-1단계는 공공개발,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2월 26일(목)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*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, 보관, 배송과 조립·가공·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주로 입주하고,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·상업·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

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,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-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*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였다.

* 부산항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 약 27만㎡를 해제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(2022년 12월)

인천신항 2-1단계는 공공개발(인천항공사)로 결정되었다.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,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㎡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.

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되었다. 해당 구역은 약 27만㎡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인천신항 2-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,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”이라며, “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, 민간개발·분양을 허용한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항만국 항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기욱 (044-200-59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우 (044-200-5920)

참고 1

항만배후단지 개요

□ 항만배후단지 정의·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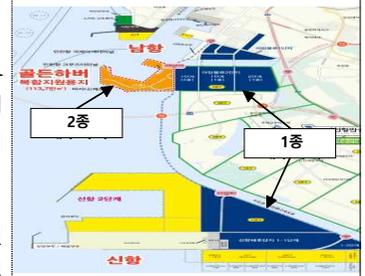
◆ 항만배후단지 정의

-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(集團的)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·판매시설·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, 항만 이용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



◆ 항만배후단지 구분

- 1종 항만배후단지 : 항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물류업, 제조업(가공·조립) 등의 기업이 입주
- 2종 항만배후단지 : 일반업무시설·주거시설 등을 조성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및 항만 이용자 편의 제고



< 인천항 1종·2종 항만배후단지 예시 >

□ 항만배후단지 지정

◆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(5년 단위)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

<제4차(23~30)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>

◆ '30년까지 부산항 등 8개 항만에 3,126만㎡를 조성계획

* 1종 2,864만㎡, 2종 262만㎡ 지정

** '24년 11월 현재 1,855만㎡ 조성 완료, 405만㎡ 조성 중, 866만㎡ 조성 예정



참고 2

공공개발 및 민간개발 대상 항만배후단지 현황

□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-1단계

- (위치/면적)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/ 약 157만㎡
- (토지이용계획)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, 업무·편의시설, 공공시설



□ 부산항 신항 옹동 2단계 전환부지(2종→1종)

- (위치/면적)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/ 약 26.7만㎡
- (토지이용계획)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, 공공시설 등

